

부활과 휴가와 연합의 3중 소망

성경말씀: 살전4:13-18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700여명, 자살만 하루에 42명
자살 사이트가 유행하고 있다. 청소년, 연약한 사람들이 죽고 있다.

죽은 자를 두고 애곡하는 모습을 보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운다.
성경은 죽음을 영과 혼이 육에서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장막 집을 벗어나는 것(고후5:1)
성경은 죽는 것을 잠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밤에 잠들면서 두려워 하는 사람이 있는가?

꽤 소망이 있으므로 아무 두려움이 없다. 내시경 할 때

사실 잠자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다. 10,000번 더하면 영원을 입는다.
사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채 태어나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엡2:1).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70-80년이라는 세월 속에 잠정적인 육신의 생명이 주어질 뿐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사랑하고 칭찬한 교회이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1:3). 믿음의 증언으로 인해 더 말할 필요가 없다(1:8).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의문:

1.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의 미래, 2.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되는가?
3. 이미 죽은 자들과 살아서 남아 있는 자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아는가?

사도 바울 당시의 이교도들(그리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는 죽음 이후의 행복을 증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확신을 갖지 못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죽는다. 죽음이 두렵다. 해결책: 철학자, 강신술사, 영매, 무당

현대 과학자와 의사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아는가?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안다(15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무덤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 ★★★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산 이유(히2:14-15),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 신약성경 말씀(눅16장)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요5:24-29; 고전15:51-54)

우리의 확신은 성경에 있다. ★★★

두 종류의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이 자는가? 몸이 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을 때 영과 혼이 몸을 떠나 즉시로 주님과 함께 있다(고후5:8;
빌1:23).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즉시로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 둘 다 살아 있다.

당신의 최종 종착역은 어디인가? ★★★

그리스도의 재림(15절)

데살로니가 사람들, 우상 속에서 살다가 우상을 버리고 떠났다(1:9). 엄청난 핍박

딤후3:12-13,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가서 살아야 할 곳이지만 체질과 맞지 않아 힘들다.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어 한다. 같은 종류끼리 만나야 편안하기에 ★★★

사도 바울은 궁극적인 소망인 재림을 강조한다. 여기에 모든 사람, 창조물의 소망이 있다. ★★★

지금 이 세상은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미국 플로리다 주 잭슨빌, 트리니티 뱃티스트 칼리지, 토마스 메서 목사가 잘못 인도함으로 자유주의
학교, 교회로 전락했다. 교사들이 반 이상이나 떠났다.

거기 교수 중 한 분의 말: 도저히 신앙 양심상 있을 수가 없다. 오바마의 사회주의 개혁

조지 부시 대통령: 미국의 첫 번째 동성연애 대통령, 말세의 징조 중 가장 뚜렷한 징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한다. ★★★

언제 오시는가?

아무도 모른다. 시한부 종말론의 위험성, 우리는 재림의 임박성을 믿는다. 언제라도 오신다. ★★★
표적을 기다리지 않는다.

주님의 재림은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으로 이루어진다.

공중 강림은 자신의 것들을 데려가기 위한 것이다. 어린양의 혼인 만찬

지상 강림은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오기 위한 것이다.

주님의 공중 재림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다(고전15:52). 재림의 확신 ★★★

부활의 소망(16절)

행17:32: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선포하자 조롱을 받음.

그리스 사람들과 대부분의 이교도들은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었다(윤희). 그런데 바울은 몸의 부활을 선포함. 몸이 이미 썩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부활이 어리석음으로 보임.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다(고전15:12-16).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있음을 보여 주셨다. ★★★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듣는 자가 행복하다! ★★★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시면서 호령하신다. 이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16절; 요11:43).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로운 몸을 갖는다(빌3:20-21).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요5:28-29; 계20:1-6).

첫째 부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것,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 7년 환난기와 1000년 왕국이 끝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악한 자들의 부활이 있는데 이것은 정죄(심판)의 부활이다.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무덤이 끝이 아님을 보여 준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

휴거의 소망(17절)

살4:17 휴거는 '희열의 상태로 채여 올라간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가셨고 그것을 예비하시면 다시 오신다(요14:1-3).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이다.

이 땅에서 가장 신비한 일들 중의 하나이다.

순식간에 수천 만 명이 사라진다. 자동차, 비행기, 기차 사고가 난다.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것은 이집트에서의 탈출과 비슷하다. 세상을 빠져나간다. 이때는 친구랑 같이 간다. ★★★

연합의 소망(17절)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만나 연합한다.

죽음은 분리시키지만 재림은 연합시킨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듯이 우리도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아브라함, 나사로를 알아보았듯이 알아본다. 내 아버지, 장모님 등

우리는 모두 공중에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 주님처럼 된다.

창조 세계도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롬8:17-19).

결론(18절)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1. 죽음은 이상한 일 혹은 끝이 아니다. 2.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편이다. 3. 고통과 고난의 끝이다. 4. 부활이 있다. 5. 휴거가 있다. 6.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의 시작이다. 7. 사랑하는 자들과의 연합이다. 8. 성도의 죽음으로 천국이 완성된다.

서로: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여자와 남자, 부모와 자식 ★★★

이런 소망이 있는가? 있다면 있는 것처럼 사는가? ★★★